

“탄핵심리 계속하면 무서운 시민 저항”

보수 기독교계, 공동 성명 통해 현재에 경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지난 2월 13일(목) “현재는 탄핵심리를 당장 기각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심리를 계속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재판관들은 을사오적 이완용이 되는 것이며, 인내하는 시민들의 겉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시키고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시민 저항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의 피대상자는 될 지라도 내란 주동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심의 절차가 없어 무효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된 현법기관이므로 모든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탄핵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는 자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또한 국회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구금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국민을 구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심리 중 계엄에 대한 지시를 왜곡시켜 음해한 자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검찰조사 증거채택은 불법이다 ▲마비된 국정을 살려 점점 침체되는 경제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속히 대응해야 한다 등을 짚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현재는 탄핵심리를 당장 기각하라

현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심리를 시작하지 않았어야 한다. 심리를 계속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재판관들은 을사오적 이완용이 되는 것이며, 인내하는 시민들의 겉잡을 수 없는 분노를 야기시키고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시민 저항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1.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2. 대통령은 내란의 피 대상자는 될 지라도 내란 주동자는 절대로 될 수 없다.

3.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심의 절차가 없어 무효이다.

4.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된 현법기관이므로 모든 의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해야 한다.

5. 대통령 탄핵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탄핵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는 자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또



한국회는 모든 의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6.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구금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국민을 구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7. 현재 심리 중 계엄에 대한 지시를 왜곡시켜 음해한 자의 거짓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검찰조사 증거채택은 불법이다.

8. 마비된 국정을 살려 점점 침체되는 경제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속히 대응해야 한다.

세계 역사는 망국의 원흉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후손은 물론 친지들과 동료들도 함께 그 죄과를 반드시 치러야 했다. 그들은 미국은 물론 서방 어느 나라에도 입국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동료들에게 살아갈 동안 편생 죄를 수 없는 명예를 씻우지 말며, 매국노가 되자는 말라. 지금이라도 약심고백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전문인으로서 그 책임임을 지는 현명한 애국자가 되기를 바란다.

세계에서 공산국가는 모두 무너졌다. 의지하지 말라. 마지막 남은 북한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중국도 기후재앙, 전염병, 건설업 디폴트, 경기침체, 군부 반란으로 무너지고 있다.

미국과 서방의 혹독한 경제제재와 중국인들이라면 세계 모든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군대는 전쟁 경험에 있고 제작한 첨단무기는 모두 그 기능이 부실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중공이다. 중국은 광시사건, 문화대혁명 사건과 천안문광장 사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아무리 충성할 지라도 숙청하는 것이 그들의 생리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고 있는 기술대국이자 경제대국이자 문화대국으로서 이 나라에 살고 싶어서 몰려오고 있다. 이 행복과 자유를 정녕 포기할 것인가? 단일 민족, 같은 문화로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유일한 나라이다.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을 팔아버리려는 천인공노할 매국노들이 되지 말라.

현법재판관들이여, 돌아서라! 용감하게 돌아서서 탄핵심리를 기각하라. 나아가 선관위장을 역임한 자로서 부정선거까지 밝혀내라. 시민들은 당신들을 애국자로서 예우할 것이다. 여러분의 솔선수범이 모든 사람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나라와 국민을 지키며 민생을 살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바른 역사는 말한다.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이었다. (신백경 선생 저서, 현존 최고의 역사학자) 한국은 무수한 외침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유영봉 조선일보기자의 겸정되지 않은 고회 축하 논문에 931회로 표현했다. 고증되거나 다른 사람과 겸증해 보지 않은 자신의 가설일 뿐이다. 우리는 오천년을 이어온 강대국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2:6)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자유한국교육원



‘돌아오는 사람들,
되돌아가는 사람들’



조용목 목사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행 14:15, 딥후 4:7~11)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이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며,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의 근본은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철저하고 완전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돌아온 펑자 이야기입니다.(눅 15:11~32) 사람의 행위 가운데 비할 데 없이 복되고 축하 받을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전환을 한 사람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으로 되돌아가버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1세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인迦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이론을 원망하며 “에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민 14:2~4) 그들의 불행과 비극은 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핑嬖이나 환난이 닥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짐스럽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래를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고 한편으로 해야 할 것도 많아서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

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생명의 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요 6:51:58) 그러자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여럿이 떠나버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요 6:66) 그들이 예수님을 떠온 이유는 자기의 사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과해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편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넷째,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데마, 누가, 그레스케 그리고 디도 등이 그의 수감생활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세상의 달콤하고 화려한 유혹의 손길에 불지 않아 세상으로 되돌아가버렸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돌아가지 않는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는 성도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가치와 소득으로 여기고 가장 큰 보람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환영과 베풀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이나 핑嬖이나 유혹을 만나도 되돌아가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미치고 믿음을 지켜서 잠자 의로우신 주 하나님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현재 절차 비판한 현직 검사장… “일제 치하보다 못하다”

현재의 재판 진행 태도 문제 삼아…이영림 춘천지검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현법재판소의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해 현직 검사장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지난 2월 12일(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 인재판보다 못한 현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의 재판 진행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현법재판소 문형재 재판관이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간 밤신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최소한의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조차 불허한 것은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설교 후 최남도 선교사(하카리복음교회)의 축사, 오세준 목사(침례교, 교단 총무)의 특별축사, 염순복 선교사(사마에 순복음교회)의 권면 및 인사, 그리고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회원들은 회순에 의해 정기지방회를 열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으며 신입회원 가입, 임원선출, 사업계획 수립 등 각종 업무를 확정했다. 일본지방회장에는 백선 목사(우에노임마누엘교회)를 회장에 재선대하기로 했다. 정기지방회를 마친 후 숙소로 이동해 함께 식사하며 일본복음회를 위해 대회를 나누고 서로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일본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

일본지방회 정기지방회, 회장에 백선 목사 재선대

교단 일본지방회(백선 목사) 2025년도 정기지방회가 지난 2월 3일(월)과 4일(화) 일본 사마에 지역에 있는 사마에순복음교회(염순복 선교사)에서 교단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 내외를 비롯 교단 총무 오세준 목사, 염순복 선교사, 백선 선교사, 최남도 선교사 내외, 전왕성 선교사 내외, 김복순 선교사, 정성애 선교사, 이방영, 사지마요 전도사(부교역

자) 총 14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신 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일본복음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지방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일본지방회장 백선 목사(우에노임마누엘교회)의 사회로 시작, 정성애 선교사(오사카 메구미교회)의 대표기도, 이영



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일제 강점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 후 일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일제 재판부조차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했고, 안 의사의 1시간 30분 동안 의견을 밝혔다”며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은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법조인의 기본 소양이며,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우주 최강’이라 자부하는데, 지금의 현재는 그런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 법원이 과거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특정 정치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가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 이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법적 원칙이 무너진다면, 결국 현재도 반법적이고 불법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가 대한민국 법원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키고, 내 아버지가 자리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daily

대한민국원로목사의회 준비위 출범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원로들이 나서야

(사)대한민국원로목사의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2월 7일(금)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김상우로 소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글로리아홀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감사예배를 드리고 (사)대한노인회총영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호일 목사를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예배는 김미리야 목사 사회로 정도 출 목사의 대표기도, 김민희 목사의 성경봉독, 김원식 목사의 사 61:1-3절을 본문으로 한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날 참석한 교계 원로들은 특별 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계를 위해서', '원로목사의회를 위해서' 각각 기도를 인도했으며, 이어 이형준 목사의 봉헌기도, 이주태 장로의 광고 후 김태경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의는 김동청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



장 김호일 목사의 인사말, 한창영 목사의 원로목사의회의 설립취지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김호일 목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교계 원로들이 나서서 수습을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원로들이 없어 혼란에 빠져있다"라며, "이제 우리 원로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이 사명을 위해 밟고 나서야"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장통합총회장 김동권 목사, 기성경총회장 이용규 목사의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회의는 계속해 총재를 비롯한 의회를 함께 이끌어갈 임원추대는 대표회장 김호일 목사를 비롯한 이주태 장로 등으로 추대 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키로 하고 조직이 완료 되는대로 오는 4월경 설립 및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예장개혁총회, 총회신학 출업예배

신학부 제37회, 연구원 제33회, 학술원 제21회



이번 출업식에서 학술원장상은 정진영 학우, 총장상은 이인범 학우 등 17명이, 연구원장상은 최세훈 학우 등 17명이, 논문상은 이정인 학우가, 봉사상은 신상경 학우 등 32명의 학우가 각각 받았다.

출업예배는 출업생 일동의 교제제작 후 총

장 정서영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총회신학은 합동개혁 총회인준 신학으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이다.

서울 본원 및 전국 15개 지역에 분원과 일

본에 나리타와 후쿠오카 분원이 있다.

한기총 총무협, 서승원 회장 취임

“국가적 위기 앞에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목사는 "총무협은 그간 한기총의 안정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 교회를 위한 총무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취임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박동휘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이종복 목사(부회장)의 기도, 한기총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불법은 죽는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도 목사는 "최근 국가적인 혼란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철저한 법과 원칙만이 혼란을 잡아우고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무협은 월례회를 갖고, 총무 협 부서별 사업계획 및 예산, 아카데미 개설 준비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취임식에서는 직전회장 서기원 목사가 서

명예회장을 축사를 했다. 김정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는 지난 2월 6일(목) 서울 연지동 한기총 본부에서 총무협 회원 및 한기총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기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회장 서승원 목사는 "이번 회기 총무 협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체 사역 확장, 회원 재교육 등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총무 협은 단순 친목을 넘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을 보듬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워크샵 등 친목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해외 선교지를 방문해 함께 땀 흘리며, 선교지를 격려하는 의미있는 일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취임식에서는 직전회장 서기원 목사가 서

명예회장을 축사를 했다. 김정환 목사(한기총 사무총장)가 축사를 했다. 김정환

KWMA '건강한 선교 방향' 위해 선교논문 공모

10월31일 마감, 우수 논문에 시상 예정



한국세계교협의회(사무총장 강대홍 목사, 이하 KWMA)가 한국교회에 건강한 선교 방향을 제안하고, 차세대 선교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한 '선교논문 공모전'을 시행한다.

공모전 연구 주제는 △빠르게 늘고 있는 비서구권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참여를 연구하는 글로벌 사우스 선교 운동 △이주민 인구 300만 명 시대의 국내 이주민 사역 △한국 선교의 세대교체와 발전을 위한 미래 세대 선교 동원 △컴퓨터와 온라인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새로운 선교 영역으로 출현한 디지털 선교 등이다.

논문 언어로 국문 또는 영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언어에 가중치는 없다. 논문작성은 한국선교신학회 또는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의 투고 규정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 오후 5시까지이며, 결과 발표는 12월 중에 해당자에게 안내하고, 2026년 2월 중에 시상할 예정이다.

한기원 신임 대표회장에 김성만 목사

어려운 교계 원로목사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한기원) 제27대 대표회장에 김성만 목사가 취임했다.

김성만 신임 대표회장(이누가선교회 대표회장)은 지난 2월 6일(목)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드려진 취임 감사예배에서 한기원의 5가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관심과 기도, 참여를 당부했다.

김성만 신임 대표회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한기원 후원사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한기원의 비전과 이슈를 잘 알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먼저 한기원 중앙회를 설립하고, 전국 시도 지사를 설립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일어나리 빛을 밝히라' (사 60:1)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제1부는 임천양 목사의 찬양인도와 김성만 신임 대표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제2부는 한기원 사무총장



이선규 목사의 사회로 강서대 전 총장 박신배 목사의 대표기도, 누가신학대학원 원우나윤서 박사의 성경봉독 후 한기원 찬양단 (지휘자 김현실 목사)의 특송, 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기도 시간은 기장 전 총회장 유정성 목사가 '한기원 부흥발전을 위하여', 누가선

교연합교회 김선필 목사가 '세계선교를 위하여',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공동회장 김봉용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교협의회 전 총회장 김홍철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한국신학연구원 원장 최홍영 목사가 '나라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위하여' 각각 기도하고 참석자들은 다 함께 합심기도를 했다.

CTS, 서울시의회와 '7000미라클 박스 기부 전달

최현탁 사장 "힘겨운 이웃들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도구되길"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가 2월 10일(월)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서울시 취약 계층을 위한 '7000미라클 박스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부전달식에는 CTS 최현탁 사장과 서울특별시의회 김

이성배 의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현탁 사장은 "이번 미라클 프로젝트가 힘겨운 이웃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창사 30주년을 맞이한 CTS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서른 살의 예수님처럼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일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이날 전달식에는 CTS 주요 임원들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후원품 배분 봉사를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봉사 활동을 통해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희망봉사를 앞세우는 성실한 시의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경과 나눔의 방송 CTS는 지난해 11월부터 '미라클 프로젝트'를 펼쳐왔다. CTS는 대

표 프로그램인 '7000 미라클'을 통해 한 상

자당 5만원의 후원을 받아 난방용품, 간편 조리식품, 위생용품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채워 취약계층을 섬겼다.

6년 만에 석방된 선샤오춘 목사 위해 기도 요청

순교자의소리, 신학생들 감주고 처벌 감수하며 신앙 지켜

중국에서 6년 이상 수감되었던 선샤오춘 (Shen Shaochun) 목사가 지난 2024년 말, 원난성 시창반나 교도소에서 조기 석방됐다. 그는 2018년, 미얀마에서 중국으로의 불법 국경 횡단을 조직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왔다.

선 목사의 석방은 국제적인 기독교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편지 보내기 캠페인의 결실로 평가된다.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그가 수감된 동안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이 편지를 보내도록 독려하며,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그의 상황을 주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는 6년 3개월 만에 조기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선샤오춘 목사는 지난 1990년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한 후, 2006년 전임 목회자로 헌신했다. 2016년부터 미얀마 와주(Wa State)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수

초등학교(Living Water Elementary School)'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 선교에 헌신했다. 그러나 2018년, 해당 학교의 신학생 4명이 미얀마 경찰에 체포된 후 중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그 역시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신학생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처벌을 감수하며 신앙을 지키려 했다.

그의 수감 생활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지속되었다. 특히 고열암과 치아 통증, 그리고 한쪽 눈 실명 등 건강 악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교도소에서 시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작업을 배정받아 남은 한쪽 눈의 시력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지속적인 기도로 신앙을 지켜나갔다.

발달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위해 협력키로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대표이사 장형옥)는 지난 1월 15일(수) 경기도 남양주시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학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굿윌스토어 마석점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협약이다. 또한 이번 협약은 굿윌스토어 마석점에서 진행된다.

무협약으로 양측은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층 자립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아울러 지역 사회공헌 확장 및 상호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키로 약속했다.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은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사 20여 명이 2015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작으



로, 2023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사업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홍성만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상임 고문은 "두레울 사회적협동조합과 굿윌스토어가 업무협약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오늘 협력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기울여 좋겠다"라고 전했다.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는 이번에 업무 협력을 체결한 마석점 외에도, 서울 양천점과 문정점, 송파점, 은평점, 강동점, 경기 양양점 등 서울과 수도권에 11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대표전화: 1644-9191)

생명의 말씀



권 용 덕 목사

- 강원지방회장
- 철원순복음교회 담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애굽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듯이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리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칠hood 같은 어두운 환경이 몰려올 때 주의 재림의 영광이 가까울 때 성도들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새벽을 깨우십니다.

하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목시를 주십니다. 이러므로 사명자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사명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기쁨과 열정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해 사명자가

세워집니다.

사명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성령충만한 자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갈보리언덕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애망과 욕심은 결코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에 파도처럼 넘치고 있음을 믿고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전사로부터 들려오는 영원한 복음 전파사명에 충실히으로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광야에서 모세처럼 사도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외로움과 기다림과 자기부인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과정을 통해 세워집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아니리”(마 8:34)고 말씀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고 바울에게 “가라 그리고 전하라”는 명령을 듣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의 예에 위하여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섭끼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버지가 주신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명자가 만물을 지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서 “헬렐루아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주의 제자스데반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애녹은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심판주를 보고 예언하였습니다.

2)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자의 기쁨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사명자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자로 생명을 살리는 영광이 더욱 넘치므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사

명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결손과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

시는 심판 주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 말고 구원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20) 우리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위해 일합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가데스 므리바 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바벨론왕 느부갓네살과 헤롯왕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 하므로 왕의 자리에서 죽거나 주의 사자가 치므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저의 지난 36년의 목회와 선교사역 그리고 가정생활을 돌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과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고통과 실수가 있었지만 보혈의 능력으로 내 중심의 생각과 결정이 치료받고 마귀와 죄와 육신의 자아를 물리치려고 기도와 몸부림으로 주를 바라보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다리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

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 30:18)

시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의 신앙과 성경대로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나리와 민족을 깨웁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종교다원주의 배경,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입법부 악법 제정 저지를 위해 기도에 힘쓰고 불의에 저항하므로 어두움을 몰아냅시다.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를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명예와 친송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돌리며 살아갑시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인 그의 뜻을 이를 사명자를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말고 사명으로 이겨야 합니다. 지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고 버림 받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만나와 흰 돌을 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고 착하고 풍성 된 주의 종으로 성령충만한 사명자로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

동정

한성연 이단백서 공동발간



한국성결교회연합
(대표회장 윤문기
감독) 소속 3개 교단이
‘이단백서’를 공동으
로 발간한다고 지난 2
월 3일 밝혔다.

한성연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
총회장 류승동 목사) 예수교대한성결교
회(총회장 김만수 목사) 대한기독교나사
렛성결회(감독 윤문기 목사)가 모인 연합
단체다.

승실대 이윤재 신임총장 취임



승실대학교 제16대
이윤재 총장의 취임에
배가 지난 2월 4일 오
전 11시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 총장은 “16대 총장
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승실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며 승실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성연
이단아이비대학원들은 최근 서울 강남
구 기성 총회 본부에서 전체 모임을 열고
이단백서 공동발간을 결의했다.

월드비전 자원순환 봉사활동



월드비전(회장 조
명환)은 롯데케미칼
'프로젝트 루프
(Project LOOP)'와 함
께 최근 자원순환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롯데
케미칼 프로젝트 루프는 지난 2020년부
터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기반 마련
을 위해 시작된 사업으로, 폐플라스틱 수
거문화 개선을 목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동대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평가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대학일자리플
러스센터가 고용노동
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이 주관한 '2024년 대
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는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해치다니

지난 10일 대전에서는 교사에 의하여 어린 학생이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부모들은 학교에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는데, 오히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나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사고의 위험에 대하여 교육 당국

도 교육청도 학교도 세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다. 그 교사는 이미 7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여려 차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고, 평소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방지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이나 학교

에서 엄격하게 문제성 있는 교사들을 관리 했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은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나 견사 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마다 교사들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또 진보 좌파 교육감 등에 의한 ‘학생인 권리’ 등을 강행함으로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사들이 억압된 상태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직원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

이 지난 2020년에 4,819명에서 2023년에는 9,468명으로 두 배나 급증하였다. 이는 교사 1,000명당 37.2명꼴이다.

또 하나님은 교사에 대한 철저한 인성, 적성 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전문 직종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루는 소중한 직업이기에 그에 맞는 인성과 적성은 필수이다. 만약 이런 것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철저하게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겠는가? 교육부는 고위험군 정신질환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하늘이법’을 만든다고 한다. 이런 교사는 업무 배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직에서 떠나게 해

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신건강 견사를 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 교육부의 2025년 예산은 총 104조 8,767억 원이다. 그 중에 영 · 유아 및 초 · 중등교육을 위한 것은 무려 8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 가운데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철저하게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와 교육 당국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다. 그런데도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관계자들의 책임이다. 교육 당국과 학교는 문제 있는 교사를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대한

다고 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신적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돋고 점검해야 한다.

교사는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와 같다. 그 작가의 아름다운 예술성에 의하여 좋은 작품이 나오듯이, 무궁한 가능성과 꿈을 가진 아이들이 좋은 교사에게 맡겨졌을 때, 미래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에게 앙숙되는 것이다. 반면에 잘못된 교사를 만난 아이들은 학교를 통하여 상처와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양시론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목사들에게

전한길 강사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자유와 함께할 때 그 빛을 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앙의 자유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최근 기독일보 CHTV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전한길 강사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목사들에게”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의 신앙적 자유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독일의 역사와 신앙의 자유

독일이 한때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등장과 나치당의 집권으로 인해 신앙의 자유가 억압된 사례가 있다. 당시 독일 교회 내에서도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권력의 탄압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고, 이는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때 교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위협받는 순간, 교회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성도들은 신앙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한민국의 신앙적 뿌리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유교적 전통이 강

한 나라였다. 그러나 3.1운동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듯이, 한국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

대한민국 초창기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법을 제정했던 역사적 사실은 신앙이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독립과 정부 수립 과정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깊이 스며들어 있었으며, 그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앙과 정치의 균형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보수의 개념은 “인간의 소중한 삶, 가정의 가치, 결혼의 신성함,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며, 이는 기독교 신앙과도 맞닿아 있는 가치이다. 반면, 진보적인 입장은 가진 이들도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이 신앙과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교회와 목회자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했던 교회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이에 침묵했던 결과는 현대판 자발적 신사참배와 같다.

오늘날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책에 분별없이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길이 아니다.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기억해야 한다.

강단에서 외쳐야 할 메시지
강단에서 목회자는 신앙의 본질과 진리를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적 도전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복음 10:10)
만일 목회자가 눈치를 보며 침묵한다면, 이는 소금이 맛을 잊어 거리에서 밟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는 결국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목회자의 결단과 소명
전한길 강사는 평신도임에도 연봉 60억을 포기하면서까지 성경적 가치관을 외쳤

“대구 역대 최대”… ‘세이브 코리아!’ 한파 녹인 기도

동대구역서 주최 측 추산 15만여 명 운집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지난 2월 8일(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15만여 명(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한파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밀려든 인파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가운데, 탄핵 반대하는 이들이 결집하면서 갈수록 집회 규모가 커지고 있다.

최근 매주 이집회 강단에 서는 한국사 전 한길 강사 역시 강사로 참여해 열변을 토해

다. 동대구역 광장뿐만 아니라 역사 내외부와 인근 도로까지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혼잡을 빚었다.

부산, 서울, 광주,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탄핵 반대 여론의 강도를 보여줬다.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자유 민주주의 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과 대구시 관계자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광장 인근 도로 통제를 강화하고 교통정리를 실시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에서 이 정도 규모의 단일 집회는 처음”이라며, “사전에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동대구역 내 교통이 마비되면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과 코레일 철도역에서도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역사 내부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일시 중단됐으며, 역사 출입구 대부분이 인파로 가득 찼다. 동대구역

관계자는 “평소 출입구를 통해 이동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역사 내에서는 “6 번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고 일부 시민들은 공간을 피해 역사 2층이나 근처 상점들로 이동해 집회 상황을 지켜봤다.

이날 집회는 기존 보수 집회와 달리 젊은 층과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었다. 20대 청년들은 “윤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시키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며 집회에 참가한 이유를 밝혔다. 30대 여성 참석자들도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며 탄핵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일부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해 “비상계엄 발동이 놀라웠지만,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지지 의사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사로 무대에 오른 전한길 강사는 헌법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탄핵 추

진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정치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고 대통령을 몰아가고 있다”며 현 정권과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탄핵 반대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 수사 촉구, 정치적 편향성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대구집회는 지난 2월 1일(토)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집회 당시 경찰 추산 인원이 1만 3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동대구역 집회는 무려 5만여 명이 참여해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집회에 참석한 한 부산 시민은 “부산에서 열린 집회도 상당히 커지만, 대구 집회는 그보다 열기가 더 뜨거웠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동대구역 관계자들은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역사에 몰린 것은 처음 본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만, 큰 사고 없이 집회가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CT



8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열린 대구 동대구역 광장이 인파로 인해 벌디딜 틈이 없다. ©뉴스1

광주에서도 ‘세이브 코리아!’… “지역갈등 넘어 대한민국 자유 위해”

3만여 명 운집한 가운데 금남로 일대서 진행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기도 모임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15일 오후 ‘진보의 심장’이라 불리는 광주 518문화광장 입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개최됐다. 인간 성회복운동본부 박용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기도회는 약 3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남지방경찰청경북연합회 대표회장 이기봉 목사의 시작기도로 진행됐다.

지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광주 일어나야 먼저, 메시지를 전한 세계로교회 순현보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좌파와 우파, 동·서의 문제가 아니다. 29번의 탄핵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있을 수 없는 일을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히틀러를 막지 못한 독일의 사례를 들며 “광주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으며, 살 수가 있다”며 “자기를 바다에 빠트려 죽이려 했던 자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용서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픔을 겪은 광주 시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을 애하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 갈기

갈기 찢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좌·우파 진영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처지였다면 광주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자유를 잃어버린 전체주의로 가느냐의 문제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보다 낫기 위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아픈 부분을 끝을 때 역사는 광주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의 메시지, 경남성시회운동본부 운동회장 이경은 목사의 ‘나리를 살리는 기도’, 광주 성골청년 정민석·김현석 군의 청년발언, 호남대안포럼 주동식 공동대표, 코리아개혁TV 고현석 박사의 메시지가 있었고, 댄서 YOON, 전자 바이올린 연주자 유에스더의 축하공연 이후 보수청년 음악 유튜버 드럼통타이거, 전교조 출신 교사 유튜버 하세비, 김찬혁의 자유시민 발언이 있었다.

좌·우 지역갈등 아닌 오직 ‘상식과 애국심’으로

유튜버 그라운드C는 “광주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을 믿는가”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에겐 마지막 퍼즐이 있다. 대구와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부산과 서울이 뒤집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광주”라고 했다.

이어 “먼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일희일비, 물러서지 않는다. 이길 때 까지”라며 “둘째로 이 위대한 자유의 여정, 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위한 여정에 아름다운 도시 광주와 호남을 초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으며 이 순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제는 좌·우의 싸움이 아니다. 지역갈등이 의미가 없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오직 대한민국 하나를 바라보며 싸우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국민주권에 전라도와 경상도, 좌·우가 어디 있는가. 오직 상식과 애국심만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는 오직 싸우는 자에게만 허락된 귀중한 가치”라고 했다.

지역갈등의 역사 종식시키고 하나된 대한민국 둘려줘야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민주화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광주시민들의 열정을 강제로 꺾을 수는 없는 것 같다”며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앞서 기도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다시 살아 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겠다는 희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인 광주시민과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지역갈등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모든 지역이 하나 된 대한민국을 2030 세대들과 미래세대들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둘려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 다시 지역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통합을 무너뜨리는 반국적·반민족적 억적으로서 국민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켜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자는 우리의 주장은 선한 빛의 일이며, 진실을 찾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우리의 요구와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는 2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앞 2번출구에서 진행되는 대전집회에 전한길 강사를 비롯한 여러 연사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cdaily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5 교단청년연합 겨울캠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고전 3:16-17)



2024 전국 청년 동계 연합수련회 기념촬영 광경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청년국

국장 오세준 목사 010-5041-3411
차장 문찬우 목사 010-5420-2787

동계 연합수련회 일정표		
시간	2월 28일(금)	3월 1일(토)
07	기상 및 조식	
08	어서와요~	
09		정리 및 속수, 청진 청소
10		찬양: 순복음아멘교회
11		신앙의 Q&A
12		(인도: 이경진 목사 / 패널: 목사님)
13	집 수	폐회예배
14		찬양: 오순칠찬양교회
		사회: 오세준 목사
		기도: 순복음아멘교회 청년증설교 / 축복장 김영준 목사
15:00		(당당: 고대운목사 / 이어스브레이킹)
15:10		특강
16		제갈성별 의정부시청 ‘빙상장’ 강독
		창양 콘서트 (민트마이크스 송재홍목사)
17		예수 나의 친교자 / 각자, 각국
18:30		저녁식사
19:30		조별끼리 (당당: 고대운 목사)
21		저녁 집회 경배와 찬양 / 대림 별별교회 강사: 김인수 목사님 기도회 인도: 문찬우 목사
23:30		야식
24		취침

집으로~

월례회 개최...풍년 인생을 만들자!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2월 10일(월) 헬몬산교회에서 지방회 월례회를 개최하고 나리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와 교단, 지방회,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임경원 목사의 찬양기도와 이광우 목사(순복음새생명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마 13:1-23 말씀을 본문으로 '풍년인생 흉년인생'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씨뿌리는 말씀을 예로 들었다.

이 목사는 "인생 놓사는 단 한번 뿐이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풍년 인생의 원리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좋은 씨를 골라야 한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는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때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세번째는 인내하며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기해야 한다. 인내가 요구된다"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했다.

이어 이미경 목사(순복음동방의빛교회)의 나라와 민족·교단과 지방회·개교회와 교역자를 위한 중보기도 인도, 이원정 목사(다메섹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벧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 주재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헬몬산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따뜻한 교제를 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안재봉 목사)는 지난 2월 16일(주일) 오후 4시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에서 2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고 어려움에 처한 나리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월례회의 각종 회무를 은혜기운으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

무 조광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이동을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김경순 목사의 성경봉복, 이성기 목사(순복음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시 121:3-4 말씀을 본문으로 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안재봉 목사 주재로 회원점명, 지난회의록 보고 등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또한, 순복음아멘교회(담임 임형순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함께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다.



“기장–동성애 옹호 안한다” 일부 물지각한 그룹 회개촉구

한국기독교장로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세미나 및 기도회 개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가 2월 11일(화) 흥성 평안하고고든한교회(담임 오종설 목사)에서 제5차 세미나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표 김지연 약사가 강사로 나서 '동성애와 미야 중독' 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김 약사는 최근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관련 용어 및 최근 정책, 의과학적 문제

점,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본 마야 및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의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김성한 목사(안양 은혜교회)가 '동성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신앙적 관점에서 동성애 문제를 조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기장 교단에서 퀴어신학이 퇴출되기를 기도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총회의 바른 정체성

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성화 목사(성산중앙교회)의 인도로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가 설교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요 14:11-15 말씀을 본문으로 다양한 이름에서 예수이름으로 복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일부 문제 있는 교회와 목사들로 인해

기장 교단이 동성애나 평등법을 옹호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기장은 교단의 공식적 차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부 물지각한 그룹이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괴력했다.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에는 기장 목회자 331명과 장로 864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장의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재확인하고,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더욱 확고

히 하는 기회로 삼았다. 세미나에 함께한 한 성도는 "기장 교단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집회가 좀 더 자주 열리기를 소망 한다. 그리고 기장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적 진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세상의 동성애와 미야 등 유해한 문화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는 교단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는 5차례에 걸쳐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성경적 진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의 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올바른 가치관을 전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면서 "교단을 넘어 다양한 교회와 협력하여 동성애 및 동성혼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odaily



목양신문은

종교대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홈페이지: www.ucts.org

2025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출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쪽 이내)
- ⑥ 반영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3. 전형내부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입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http://gd.ucts.org

2025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총회서소(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학적 밟기 등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국장협, '엘리트 오디션' 성황리 종료

차세대 발달장애 전문예술가 발굴을 위한 특별 오디션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이사장 최경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한 '2025 엘리트 오디션'이 지난 2월 6일(목)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오디션은 발달장애 클래식 음악 전공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전문 예술가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오디션은 전국 각지의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관악(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롬본, 색소폰 등), 피아노 등 총 3개 부문에서 실기 심사가 이루어졌다. 지원자들은 3분 이내의 자유곡을 연주하며, 국내 클래식 음악대학 입시곡에 준하는 수준 높은 곡으로 참가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심사는 곡 적합성, 표현력, 기본기, 발전 가능성, 곡 완성도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단은 국내 클래식 전문가 및 장애 예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엘리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국장 협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의 실기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연주 활동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이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장협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연주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공연뿐만 아니라 영국(미국)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도 이들의 재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디션의 결과는 2월 21일(금)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국장협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발달장애 예술가의 저변을 넓히고, 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6면에서 이어짐

트럼프의 대북 핵정책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큼 동맹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폐신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공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8. 한국교회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한국의 경제와 정치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민간부문의 역할하는 것은 중요하다.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한국 대통령이 유고(有故)를 당하여 외교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이 어려운 시기 에 독실한 신앙을 가진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통한 친선과 국가적 중요 관심사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은 그와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가의 위기 때 지도층의 개인 관계도 중요하다. 625 북한의 남침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 트루만 대통령과 이승만 사이에는 기독교와 반공(反共), 자유민주주의 신념이 공유되었고, 한국에 와서 복음전도집회를 인도한 빌리 그雷翰 목사가 트루만 대통령

에게 신앙의 자유 나라 한국을 지켜달라고 조언한 사실은 유명하다. 일본에 주둔한 미국의 맥아더 사령관과 이승만의 개인적 친밀관계도 중요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미국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을 움직여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관료들이 신앙의 자유 나라 대한민국을 북한과 달리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한다는 것은 필요하다. 다각적 민간 외교와 교회의 국가를 위한 기도가 요청된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의 대행 체제 정부는 전통적 한미동맹의 채널을 가동하여 트럼프 정부와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개통하여 탄핵 소용돌이에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체제가 정착하도록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외교적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5년 2월 10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복음의 종소리

태양의 기상 여명이 밝아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 따라 마음의 둑도 실경에 이르렀네. 이 친란한 숨결이여 천상의 비경인가, 인생의 순례자여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 양심의 외치는 태고의 소리를 경청하라. 아 양심의 맥박이여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라. 진실의 강이여 절망의 숲에서 희망의 포구로 인도하라.

오 주여! 겸손히 엎드리어 무릎 끓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죄과를 도맡해 주소서! 밀할 수 없는 악행을 사하여 주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에 빼신다 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도덕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무엇보다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살기 좋은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우리 후손들이 전해 주게 하소서.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자

로 살게 하소서. 가족세트 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는 올해도 국내외 복음전도 스케줄로 가득 찼다. 어디든 가오리다. 오지라도 가오리다.

호롱불이 켜지는 곳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암울한 곳이라도 가오리다. 주여! 기라 하면 가고 서리하면 서겠나이다. 어디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랑의 종소리, 생명의 종소리, 복음의 종소리. 온 세계 위에 널리 널리 전하리이다.

지난해도 미국, 브라질, 필리핀, 인도, 일본 등 여러 나라 복음전도와 집회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올해의 사역도 국·외 전도와 선교로 주님은 부르시고,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는다. 다만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엎드리어 무릎 끓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가족세트전도 총괄본부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장기기증운동본부 제주 라파의 집 후원

신부전환자위해 사용, 전국 8개 교회 후원금 2,050만원

(재)사랑의장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는 8개의 교회가 만성 신부전 환자를 위한 제주 라파의 집에 2050만 원을 후원하여 생명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9일 전라북도 군산의 군산서문교회(담임 장지산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올해 창립기념일을 맞은 군산서문교회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장기부전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예배에서 교회의 담임 장지산 목사는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마지막 순간 그 선물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전하자, 성도들이 장기기증을 약속하며 사랑을 실천했다.

장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한 성도들을 보며 장기기증 운동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루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며, “창립 50주년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이웃을 섬기며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다”라고 밝혔다.

군산서문교회는 지난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모은 현금 1,000만 원을 제주 라파의 집에 기탁했다. 2025년에도 교회는 생명나눔 활성화와 운동을 위한

봉사활동 및 물품 기부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밖에 서귀포제일교회(배성열 목사)와, 은혜광성교회(박재신 목사), 이촌동교회(김성진 목사), 제주드림교회(김태완 목사), 제주로아교회(최기완 목사), 제천백운교회(신상균 목사), 큰빛침례교회(김선주 목사)가 라파의 집에 후원의 손길을 더했다.

월드비전 홍진경과 함께 아프리카 소녀들 후원

소녀들 조혼막고 학교에 보내기 ‘1000명의 소녀들’ 캠페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2월 11일부터 방송인 홍진경과 함께 조혼 위기에 처한 1000명의 아프리카 소녀들을 후원하는 ‘1000명의 소녀들’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프리카 국가에는 아직도 재정적 어려움과 식량 불안, 문화적·사회적 악습으로 가족이나 자취금을 받고 18세 미만 아동이 결혼하는 조혼 악습이 남아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1420만 명의 소녀들이 만 18세가 되기 전 결혼하며, 그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과 성착취

대상이 된다.

이에 월드비전은 방송인 홍진경과 함께 아프리카 소녀들의 조혼을 막고 학교에 보내기 위한 ‘1000명의 소녀들’ 캠페인을 진행했다. ‘1000명의 소녀들’ 캠페인은 참여시 아프리카 소녀와 후원 매칭이 되며, 조혼의 위기에 처한 소녀 지원과 지역개발사업을 후원하게 된다. 정기후원에 참여한 후원자에게는 책가방을 메고 있는 ‘위드베어’ 키링을 선물했다.

‘위드베어’는 후원을 통해 예쁜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소녀의 모습을 상징한

다. 위드베어가 메고 있는 책가방은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로 사용 가능하다. 후원금은 우간다, 케냐, 가나, 부룬디, 시에라리온 5개국의 소녀들을 위한△조혼 방지를 위한 부모와 지역민의 조혼 인식개선 사업△조혼과 성폭력,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 창구 마련 및 위기 상황 개입을 통한 아동 보호 사업△성 교육, 생리 관리 교육 등 소녀들의 성생식보건교육△생리대 지원 및 위생적인 여아 화장실을 만드는 환경 개선 사업△성인이 된 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 등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천년초의 효능

- 1)페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취실험)
-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제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풀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칼슘 : 흉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 (호서대연구논문)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햄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증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신비한 자존감

어느 날 아침에 한 무리의 노예들이 고된 일터로 끌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힘도 없어 보였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힘 없이, 표정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심하게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곳곳에 피멍이 들었으며 그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절망이 그들을 누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들 중에 오직 한 사람의 노예만은 머리를 꽂았기 세운 체 밝은 얼굴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를 궁금히 여긴 주인이 청지기에게 물은즉 대답은, 그 당당한 노예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오기 전에 어느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나깨나 늘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 노예는 자신이 왕이라는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행동하도록 했던 신비한 자존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프러시아의 황제 프레데릭은 감자대왕이라고 불리웁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자를 암마의 식물이라고 해서 먹기를 꺼렸으나 기쁜 때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식물로 여겨져 군주들에게 감자를 재배해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황제 프레데릭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엄 있고 당당하지만 근엄하면서도 인자한 노인의 모습에 황제인 프레데릭도 그

노인을 존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불러서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했더니 노인이 하늘을 가리키며 하는 말, “저 하늘나라의 왕자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 당연히 자신들은 왕자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 즉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왕자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신비스러운 자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국가권력의 위협 가운데서도 신양인의 의연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17세기 청교도들은 신대륙 황무지에서 신앙을 다시 시작할 때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나, 신앙의 일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같은 믿음이 신비한 자존감이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태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벧전 2:9)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나라를 위한 기도

나사로가 죽었듯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께 알리듯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로 사랑하는 조국의 안타까움을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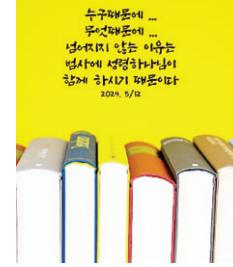
당장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지지 않고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악자들을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이 새벽에 깨닫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듯
대한민국에 삼권분립의 법치국가로
복음이 꽂피는 자유민주주의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 아니요.

구원을 펼치시는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이틀을 기다리듯
때를 따라 일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현법재판소의 판사 속에 양심의 소리를
듣도록 강권받게 하시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옵시고 직금의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모르두개를 심판하려했던 장대에
하만이 심판받게 하신 주님은 ‘역전의 명수’
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2.12

사설

수오지심(羞惡之心)

이순신 장군은 1595년 8월 6일(양력) 난중일기기에 이렇게 썼다. ‘나라의 돌아가는 질을 생각하니 위태롭기가 아침 이슬과 같다. 안으로는 정체를 결정할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으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현지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결되고 난 뒤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해 오히려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거리에서도 다른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는 모일 때마다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고 있는 요즈음이다.

주요 도시 곳곳에서 탄핵반대 집회가 요원인 불길처럼 번져 오르고 있다. 이들은 서부지법에서는 경찰 병력마저 뚫고 폭력사태를 벌이기까지 했다. 검거된 구성원 절반이 2030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깨에 메고 나갈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있다는 말이다.

맹자는 악한 일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수오지심에 해당되는 말이다. 갑자기 왜 맹자의 사단이나 하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추천 사유로 트럼프 1기 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점이 추천사유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노벨평화상에 접촉할 정도로 관심을 보여왔다. 이 것에 착안하여 그동안 반미 이미지를 줄이고 트럼프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여주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미국에 호감을 가졌을까? 이재명 대표는 과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말했고, 2017년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총선 때는 ‘왜 중국에 접적거려요. 그냥 세세, 대만에도 세세 이리면 된다’고 했다. 친중 벌언이다. 이런 발언들이 친중 벌언인 걸 미국 측이 모를까.

그뿐 아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과 중국·북한에 비판적 정책을 단행 사유에 포함했다가 삭제했다. 미국 측이 모를까. 미 의회 조사국(CRS)은 이런 사유들을 근거로 이 대표에게 비판적 보고서를 냈다. 미국에 비판적 사고를 가진 민주당에서 이런 짓을 했을까?

180도 태도변화인데 해석이랄 것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이 트럼프 환심사기에 나선 것은 이 대표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신이 계속될 경우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마치 뇌물처럼 느껴지는 트럼프 노벨상 추천은 낫 뜨거운 처사다. 정상적인 사고와 아이언맨(얼굴에 철판 칼기)이 아니고는 못할 짓이다. 하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작정한 이상 나이아 뮤라하든 말든 상관 않겠다는 태도에 이연실색할 때임이다.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에 기여했다고? 해당할 때임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미·북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이벤트는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이 통하지 않으면서 끝났고, 한미연합훈련만 중단됐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한반도 평화이며 한미동맹의 발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다수는 이젠 문맹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국민이 됐다. 눈 가지고 아옹 하는 행자 말을 곱씹어본다. 공자보다 100년 후의 사람이 맹자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수치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는 말이다. 인간의 부끄러움과 악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서 맹자의 사단·죽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에 해당되는 말이다.

맹자는 악한 일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수오지심에 해당되는 말이다. 갑자기 왜 맹자의 사단이나 하면,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이를 미국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순례자들일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이득을 챙긴다. 그것이 통할까. 상대는 바보들이다? 오늘은 중국에 세세, 대만에 세세. 그러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180도 태도를 바꿔 점령군이라고 폐해했던 미국을 향하여 세세하고 척왜(仇倭)라고 반일을 부르짖다가 느닷없이 한·일 협력은 영원하다고? 바꿔도 이런 바꿔가 없다. 우주가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는 게 아니다. 무슨 짓을 해도 통한다? 착각도 유분수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6-28)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73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 교단 제73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 시 : 2025년 3월 13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2월 28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0일